

##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의 발전 방향

오성훈 연구위원, 김원경 연구원

### 요약

- 본격적인 녹색건축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차세대 건축분야 인력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,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
- ‘태양에너지 건축설계 공모전’, ‘녹색도시 공모대전’ 등 국내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들은 녹색건축 설계에 대한 건축분야의 관심과 대중의 인식제고에 기여해왔음
- 녹색건축물은 설계와 시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 디자인과 성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시공을 포함한 건축설계 전 과정을 담은 공모전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음
- 미국의 ‘솔라 데카트론’, 국내의 ‘그린홈 짓기 공모전’ 등은 교육 및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‘짓기’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검증하고 참가학생의 관련기업체 구직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

### 정책제안

- 녹색건축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,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의 확대 개편이 필요함
- 공모전의 결과가 새로운 녹색건축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는 장으로써 기능하도록 공모전을 운영
- 공모전의 과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여 녹색건축 분야의 신진전문가 인력을 배출하는 실질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 필요

## 1 서론

### ■ 에너지기후시대(Energy-Climate Era)의 전개와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 고조

-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럽 선진국들은 환경규제 및 온실가스 규제,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산업 및 경제를 재편하고 있음
- 전세계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, 특히 녹색건축물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에 대한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임
  -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하여 t(톤)당 35달러 이상(2012년)을 호가, 시장규모도 1,4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(블루넥스트, 2012)
  - 프랑스, 벨기에 등은 탄소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, 각종 전자제품의 자격기준에 에너지효율규제 및 에코디자인 기준 등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녹색장벽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음
- 녹색건축은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패시브 건축 등에 관한 시공, 자재, 설계 등 건설 산업 전 분야에서 새 바람을 일으켜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
  - 독일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하였고, 우리나라도 '09~'13년간 총 118~147만 명 고용유발효과를 예상
  - 영국은 2020년까지 10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풍력, 조력 발전, 전기자동차 개발 등의 녹색산업 분야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(Green Newdeal) 정책 및 그린혁명계획(Green Revolution Plan)을 추진

### ■ 녹색건축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회 제공

- 이러한 확대되는 세계 녹색건축시장을 선도하고 국가간 녹색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녹색건축 산업의 인적기반 확대를 추진해야 함
- 녹색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녹색건축을 이끌어 나갈 건축학도들에게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

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

- 이에 이 글에서는 녹색건축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녹색건축 인력을 등용할 수 있는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, 효과적인 공모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## 2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의 현황

-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은 ‘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’과 ‘녹색도시 공모대전’이 있음
  - 이 두 공모전은 녹색건축·도시를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

### ■ 녹색건축 관련 최초의 공모전인 ‘태양에너지 건축설계 공모전’ 개최

- 건축분야에서의 태양열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989년 11월 18일 한국태양에너지학회의 학회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작<sup>1)</sup>
- 산업자원부, 건설교통부, 대한건축학회, 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, 한국그린빌딩협의회, 대한건축사협회, 광주광역시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대한주택공사의 후원을 받았으며, 태양에너지 또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다세대 주택, 미술관, 학교건축 등의 다양한 주제로 1990년부터 2007까지 총 16회 개최
- 2008년부터는 공모전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주관기관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(KSES)외에도 국내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분야를 다루고 있는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(KIAEBS), 한국그린빌딩협의회(KGBC)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
- 또한 건축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축학도들에게 에너지절약과 자연에너지 및 환경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공모전 명칭을 ‘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’(태양에너지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합 및 계승)으로 개칭

1) 이경희 외(2008), “태양열건축설계공모전 역대 내용”, 『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』, v.7(3), p.72.

- 제1회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전국 64개 대학에서 223개 작품이 출품되어 작품작의 수와 참여율이 매우 높았으며 작품의 질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음
- 수상작 전시도 기존의 서울과 광주광역시 외에 대구와 부산을 추가하여 전국규모로 확대<sup>2)</sup>
-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작 수와 작품의 질이 향상되는 가운데, 2012년부터는 ‘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’ 단독 주관으로 개최



태양열건축설계공모전 역대 포스터

2) 한국태양에너지학회(2009), “제2회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 소개”, 『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』, v.8(1), p.36.

##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 심사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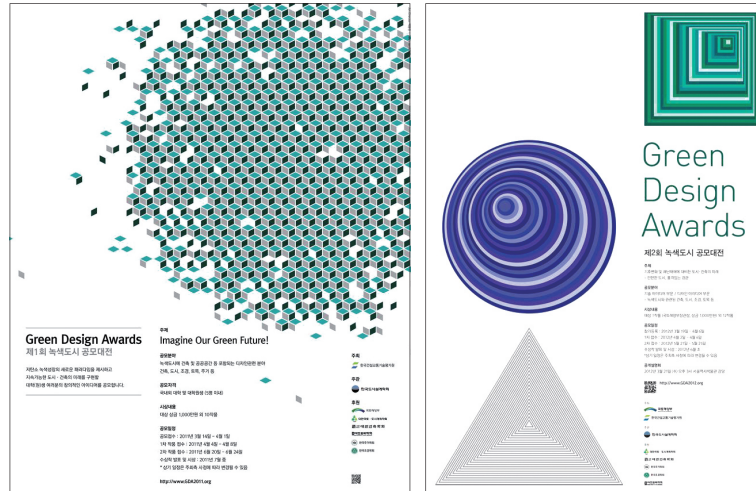
No	항목	심사기준
1	의장성 및 통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제의 설계개념이 체계적으로 설계안에 구체화된 정도</li> <li>• 주변 자연환경과 커뮤니티와의 조화와 상호연계성</li> <li>• 적용된 저탄소·친환경 요소기술의 건물과의 조화성</li> <li>• 도입 시스템의 도서관과의 통합 적합성</li> <li>• 친환경 자재 사용의 적정성</li> </ul>
2	기능성 및 성능과 효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저탄소·친환경 요소기술에 대한 기본개념 및 용도의 이해 정도와 설계 반영의지 정도</li> <li>• 제안된 공간 특성에 적합한 적용 시스템의 규모 및 용량의 적정성 정도</li> <li>• 적용 시스템의 충분한 성능발휘 및 고효율에 대한 고려 정도</li> <li>•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정도</li> </ul>
3	혁신성 및 실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설계안의 창의성 정도</li> <li>• 저탄소·친환경 요소기술간 또는 건물 적용방법 등에 참신성 정도</li> <li>• 다양한 시스템의 단순 나열이 아닌 시스템적 통합성 및 혁신성 정도</li> <li>• 설계안의 실현가능성 및 경제성, 실용화 가능성 정도</li> </ul>

출처 :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, [www.ecodesign.re.kr](http://www.ecodesign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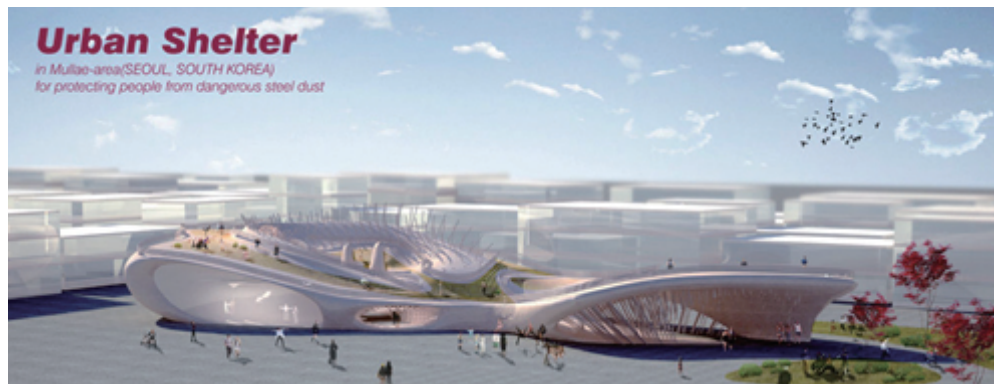
## ■ ‘녹색도시 공모대전’ 개최

-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주최하고, (사)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 하며,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학생 공모전
  - 201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, 2회부터는 기술아이디어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중
- 분야 통합을 위해 한국도시설계학회,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, 대한건축학회, 대한토목학회, 한국주거학회, 한국조경학회 등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6개 학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특징
- 공모전이 처음 개최되자마자 참가등록 739팀(128개 대학), 1차 접수 559팀(111개 대학)이라는 외형적 성과와 함께 건축, 도시, 조경, 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제출됨
- 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융·복합을 제시한 작품이 다수 출품되어 성공적인 공모전으로 평가받음<sup>3)</sup>

3) 녹색도시 공모대전 홈페이지, [www.gda2012.org](http://www.gda2012.org)



녹색도시 공모대전 역대 포스터



제2회 녹색도시 공모대전 대상

## ■ 녹색 건축 공모전의 긍정적 역할 및 향후 방향

- 국내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들은 실제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유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
  - 미래 건축학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의 구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봄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, 건축디자인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음
  -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도수상작 전시를 관람하고 여러 방송매체가 취재·보도하는 등 녹색건축에 관한 관심 제고에 기여<sup>4)</sup>

4) 이경희 외(2008), "태양열건축설계공모전 역대 내용", 「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」, v.7(3), p.72,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, [www.ecodesign.re.kr](http://www.ecodesign.re.kr)

- 학생들의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나, 디자인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져 디자인과 공학, 설계와 시공의 통합적 접근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

### 3 국내 · 외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의 새로운 동향

- 기존의 디자인 위주 공모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계획, 교육, 협업, 시공을 포함하는 건축설계 전체과정을 담은 공모전이 운영되고 있어 주목
  -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‘솔라 데카트론(Solar Decathlon)’과 국내의 ‘지속가능 그린 홈짓기 학생 공모전’이 관심을 받고 있음

#### ■ ‘솔라 데카트론(Solar Decathlon)’<sup>5)</sup>

- 미국 에너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‘비용효율이 높고,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태양열 주택’을 주제로 하며, 2002년 개최이후 2005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 중
- 유럽, 아메리카 뿐 아니라 중국과 홍콩의 대학 등 전 세계 대학교에서 참가하고, 기획안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한 후 실제 스케일의 모형을 ‘건축’하여 2차 심사
  - 각 팀당 1억 원 내외의 건축비 지원, 전시 종료 후 해당 주택을 학교 등으로 이전하여 교육과 홍보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됨
- 공모전의 3가지 목적
  - 첫째, 청정에너지 제품 및 설계 해법으로 인한 환경적 이익과 돈의 절약 기회에 대한 학생 및 일반 대중들을 교육
  - 둘째, 대중들에게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이용한 가전제품과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로 지어진 주택의 편안함과 경제성을 입증
  - 셋째,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미국의 청정에너지 노동인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고유의 교육과정을 제공
- 현재 솔라 데카트론은 에너지 효율적인 태양열 주택의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요건 연구에 종합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112개 대학의 팀과 연계되어있으며, 수천 명

5) 데카트론(Decathlon) : 10종 경기

의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개발기회로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

- 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언론보도를 함으로써, 대중들에게 청정 에너지 솔루션의 가용성 및 경제성과 이익을 교육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
- 솔라 데카트론의 참가자격은 ‘대학의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팀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먼저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음
  - 제안서와 검토의견서는 엔지니어 및 과학자 패널, 국립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, 미국 건축가협회, 미국 홈 빌더 국립협회, 그린 빌딩 협회의 전문가, 그리고 미국 난방, 냉동, 냉방 기술협회에 의해 평가됨(2011년 기준)
- 이 외에도 각 팀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참가 가능함
  - 혁신적이고 완전한 태양열 주택의 설계 및 건축 능력
  - 추가 자금 마련 능력
  - 잘 통합된 교육과정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능력
  - 완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팀
- 선발된 참가팀들은 올림픽 10종 경기와 같은 솔라 데카트론 경연에 참가하게 되며, 공모전에 참여하는 팀들은 10가지 경연에 참여하기 위한 집을 만드는 데 약 2년여 간의 시간을 소비함
  - 10가지 종목으로 구성된 경연은 주택들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얼마나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측정하기 위해 설계함
  - 세부항목은 건축(Architecture), 시장 경쟁력(Market Appeal), 기술(Engineering), 커뮤니케이션(Communication), 가격합리성(Affordability), 쾌적 범위(Comfort Zone), 온수(Hot Water), 가전제품(Appliances), 홈 엔터테인먼트(Home Entertainment), 에너지 균형(Energy Balance) 등이며 각각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있음
- 참가팀은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택을 만들어야 함
  - 합리적인 가격에 매력이 있으면서 주거에 적합한 집
  - 편안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건을 유지하는 집
  - 요리, 청소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가전제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
  - 소비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

- 참가팀들은 각 종목에서 최대 100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, 총 1,000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며 점수 획득 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
  - 빨래, 설거지, 요리 등과 같은 집안일 완료
  - 적정 실내온도범위(71°~76°F) 유지
  - 건축, 엔지니어링 및 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은 심미성, 디자인 영감 등 측정하기 어려운 기능들에 대한 점수를 판정

No	세부항목	심사기준
1	건축 (Architecture)	- 건축적 요소: 방의 규모와 비율, 외관, 실내/실외 연결 및 구성, 다양한 주택요소의 연결 - 전체적인 디자인: 거주자를 위한 편안함,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- 조명: 전기를 이용한 조명과 자연 채광의 에너지 효율성 및 통합 - 영감: 솔라 데카트론 방문자를 기쁘게 하고 고무시키는 디자인 - 문서: 대상지에 건설될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설계, 프로젝트 매뉴얼, 프레젠테이션
2	시장 경쟁력 (Market Appeal)	- 거주성: 살기에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편리하고 즐거운 장소인가? 제어가 간편한가? 고객의 바람과 요구에 부합하는가? - 시장성: 시각적 매력 있고, 인테리어 및 기교가 우수한가? 지속가능성 및 전략들이 시장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? 표적시장에서 잠재적인 주택구매자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가? - 구축가능성: 시공문서는 시공자가 정확한 공사비용을 추산하고 설계팀이 의도한대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가? 주택의 자재들과 장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건설이 가능한 것인가?
3	기술 (Engineering)	- 기능성: 주택의 에너지와 냉난방 및 환기장치는 의도대로 작동하는가? - 효율성: 주택의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? 시스템 제어는 1년 동안 운용되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가 가능하게 하는가? - 혁신: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가? 혁신은 진정한 시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지? - 신뢰성: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동안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가동할 수 있는가?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유지관리가 요구되는가?
4	커뮤니케이션 (Communication)	- 웹 콘텐츠 품질, 적합성 및 독창성 - 시청각 프레젠테이션정보, 대상지에 준공된 주택 표현의 정확도, 이해하기 쉬운 설명, 서술의 명확성 및 창의성 - 현장 그래픽, 사진, 디스플레이 및 표시(사인)의 품질 - 모든 잠재 고객 및 목표고객에게 메시지 전달 - 웹사이트 방문객 및 주택관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포함한,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의 사용
5	가격합리성 (Affordability)	- 각 팀은 에너지 절약이 지금 얼마나 소비자의 돈을 절약하게 하는지 보여줘야 함 - 각 주택의 건설비용은 전문 평가자가 결정함. - 각 팀은 \$250,000 또는 그 이하의 목표건설비용 달성을 위해 100포인트를 적립함 - 그런 다음 변화하는 포인트의 척도가 \$250,001에서 \$599,999 사이의 예상건설비용의 주택에 적용됨 - \$600,00 또는 그 이상의 예상비용의 주택은 0점을 받게 됨
6	쾌적 범위 (Comfort Zone)	- 만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다음의 조건을 유지해야 함 - 71°F(22.2°C)에서 76°F(24.4°C)사이의 온도 - 상대습도 60% 이하
7	온수 (Hot Water)	- 이 과제의 목표는 10분 또는 그 안에 뜨거운 물(110°F/43.3°C) 15갤런(56.8ℓ)을 제공하는 것임

8	가전제품 (Appliance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4°F(1.11°C)에서 40°F(4.44°C)의 냉장고 온도 유지</li> <li>- -20°F(-28.9°C)에서 5°F(-1.5°C)의 냉동고 온도 유지</li> <li>- 명시된 기간 내에 세탁물 세탁</li> <li>- 능동적 또는 수동적 건조 방법을 사용한 세탁 이전에 세탁물의 총무게와 같거나 적은 무게의 세탁물 반환</li> <li>- 식기세척기에 배치된 온도 센서가 120°F(48.9°C)까지 도달하는 중 특정 시점에서 완벽하고 연속적인 주기를 통한 식기세척기의 작동</li> </ul>
9	홈 엔터테인먼트 (Home Entertainmen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식사, 분위기 및 전반적인 체함에 근거하여 주최 팀에게 점수를 주는) 이웃들을 위한 두 번의 저녁식사 파티를 개최</li> <li>- 지정된 기간 동안 주택 안팎의 조명 유지</li> <li>- 지정된 기간 동안 텔레비전과 컴퓨터 작동</li> <li>- (홈시어터 시스템의 품질과 설계뿐만 아니라 분위기 및 전반적인 체함에 근거하여 주최 팀을 평가하는) 이웃을 위한 'movie night' 개최</li> <li>- 지정된 시간 내에 5파운드(80oz or 2,268kg)의 물을 기화시키는 주방 가전기기를 사용한 요리 시뮬레이션</li> </ul>
10	에너지 균형 (Energy Balanc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에너지 균형 경연에서 각 팀은 주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100포인트를 얻을 수 있음</li> <li>- 따라서 에너지 균형 경연을 하는 주 동안 에너지 소비량 '0(제로)'를 달성해야 함</li> <li>- 이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에 의해 달성됨</li> </ul>

2009 솔라 데카트론 수상작



Iowa State University\_Interlock House



Cornell University\_Silo House

## ■ ‘지속가능 그린 홈 짓기 학생 공모전’

- ‘지속가능 그린 홈 짓기 학생공모전’은 미국의 솔라 데카트론 공모전을 벤치마킹하여 교육적인 기능을 추가한 공모전으로서 설계안을 공모하여 직접 시공까지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공모전임
- 지속가능한 그린 홈의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,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그린 홈 유형 제시, 다양한 재료와 구법의 제시,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현가능한 그린 홈을 공모하여 계획, 교육, 협업, 시공을 포함하는 ‘짓기’ 본연의 전체 과정을 공모전에 담고자 함
- 디자인과 공학의 분리적 접근,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미비, 설계와 시공의 분리된 실무관행으로 초기 단계적 디자인 위주의 공모전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‘짓기’라는 과정을 공모전의 최종결과로 설정

- 공모전 참가학생이 디자인과 공학의 실질적인 통합 방법과 건축설계의 전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대학교육의 연장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실질적인 협업과정을 진행과정에 포함하도록 함
  - 공개적인 1차 계획안 제출 후 심사를 통해 4개 팀을 선정
  - 관련 전문가와 그린 홈 관련 특강, 실물 외장모형제작 등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실시, 멘토링 방식으로 1차 계획안을 발전시킴
  - 워크숍의 최종 결과물로서 각 팀은 2차 계획안을 제출하고, 그 중 최고의 계획안이 그린 홈 짓기에 최종 선정되어 실제로 지어지게 됨
  - 따라서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며, 최종 대상작의 시공은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의 후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루어짐<sup>6)</sup>
- 그린 홈 짓기 공모전을 주최하는 국토환경지속성포럼은 비영리 법인으로 환경부의 후원과 업체등록비를 받아 운영하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등록비를 완납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음
- 솔라 데카트론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며, 관련 업체(산업)들을 녹색건축분야로 견인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음

## 4 결론 및 정책제언

### ■ 녹색건축인력을 배출하는 관문으로서 종합적·체계적인 확대개편 필요

- 기존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들은 참가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녹색건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, 확산시켜왔음
- 이제는 공모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분야의 다양한 해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면서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경험을 갖춘 녹색건축인력을 배출하는 관문으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확대개편이 필요할 것임

### ■ 녹색건축의 실증적 검증기회 제공 및 다양한 해법 제시가 되도록 공모전 운영

- 솔라 데카트론이나 그린 홈 짓기 공모전의 경우처럼 사용가능한 녹색건축 기술

6) LESF(2011), 「2011 지속가능 그린 홈 짓기 학생 공모전 지침」, 국토환경지속성포럼  
국토환경지속성포럼 홈페이지, [www.lesforum.org](http://www.lesforum.org)

의 적용 및 시공을 통해 손수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건립해 봄으로써, 다양한 대안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

- 공모전은 정해진 대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

## ■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유도하여 기술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

- 공모전을 통하여 새로이 발굴된 설계 및 관련기술의 연구·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, 녹색건축의 기술적 혁신을 도모함

## ■ 차세대 녹색건축분야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공모전 운영

- 디자인과 공학의 괴리,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미비, 설계와 시공의 연계가 부족한 실무관행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도록 공모전 참가과정에서 녹색건축물 생산 프로세스 전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
-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험을 갖춘 녹색건축인력을 배출하고, 녹색전문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적 녹색건축물 관련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계방안을 마련

오성훈 연구위원(031-478-9650, oshud@auri.re.kr)

김원경 연구원(031-478-9683, wkkim@auri.re.kr)



건축도시공간연구소

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재해성

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(관양동) 아크로타워 B동 301호

전화 031-478-9600 팩스 031-478-9609 [www.auri.re.kr](http://www.auri.re.kr)

